

# MZ세대가 캐스팅 보트...야권 단일화 막판 변수 될 듯



지난 21일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한 대선후보의 지지현장에서 시민들이 연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전북일보=조현욱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북 “지지도도 해준 것 없다” “그래도 민주당” 고민 “극혐...투표 안 할 수도”

3·9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불과 10일 앞으로 남은 27일, 전북 민심은 과거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양상이다.

민심은 당선 가능성 등을 두고 ‘그래도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전북도민 중에는 발전 없는 ‘전북’을 이유로 제1야당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유권자 목소리도 있었다.

자영업자 김세훈씨(40·전주)는 “일관성 없는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너무 큰 피해를 겪어야 해 이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면서도 “그래도 경험 없는 후보보다 차악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

예술인 심미경씨(35·전주)는 “이번 선거는 깊이가 없는 것 같다. 그 어느 때보다 젠더갈등과 세대갈등, 정치갈등 등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이재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 중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서운함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건다

는 의견도 있었다.

간호사 송준석씨(33·완주)는 “전북에 살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냈지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기업, 일자리, 문화시설 등 아무것도 없는 전북에 대기업 유치 등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인 이향숙씨(51·남원)는 “지역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지 않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할까 봐 걱정이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부동층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MZ세대, 2030들의 막판 표심도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칭하며 실망감과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에 대해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을 표하며 투표 자체를 고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직장인 박용균씨(33·전주)는 “어느 후보도 찍고 싶지 않다”며 “민주당에게 표를 행사하자니 현 정권의 연장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경험이 없어서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고 소신을 밝혔다.

대학생 김창수씨(24·군산)는 “이번 선거는 비호감을 넘어 극혐(極嫌) 선거다”며 “토론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던 만큼 투표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일보=엄승현 기자

## 제주 대선 민심 읽는 ‘바로미터’ 李·尹 초박빙에 ‘안갯속’ 경제·청년문제 관심 많아

제주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를 조금 넘는 정도지만, 제주의 민심에서 대선 승리 가능성 100%를 가능케 볼 수 있다.

직선제로 치러진 13번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모두 당선됐기 때문이다. ‘제주의 표심은 대선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라는 말이 회자된다.

제주의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이 제주 3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도지사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원희룡 전 지사가 직전까지 두 차례 연속 당선됐다.

제주의 민심에는 시대적 상황과 지역 현안, 인물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당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제주의 민심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를 10일 앞둔 현 시점에서 도민들은 대부분은 지지 후보를 정한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한 유권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끝까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주일보=강재병 기자

거리에서 만난 제주도민들은 공정과 경제, 청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관광과 1차산업이 주력인 제주가 코로나19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 도련동에서 만난 대학생 성재현씨(24)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직장인 양한솔(29)씨는 “조국사태, LH 사태 등으로 민주당 정권에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꼈다. 청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윤석열 후보에게 눈길이 간다”고 했다.

거대 양당 쏠림, 비호감 대선,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공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대학원생 유서진씨(26)는 “이른바 비호감 대선으로 불린다. 정치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다. 서민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연동서 만난 허은희씨(52)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그래도 부정부패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강복실씨(63)는 “아직까지 누구를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의 후보가 없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상대를 꺾어 내리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 차악 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후보를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 코로나 확진자 등 5일 사전투표일·9일 밤 투표

### 선관위, 투표관리 대책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3·9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그리고 이에 앞서 사전투표 이틀 차인 5일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 차인 3월 5일(토)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확진자·격리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검사 양성 통지 문자·SNS’ 등을 현장에서 제시해야 한다.

9일 선거일 당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도착한 후, ‘확진자 등 확인방법’, ‘본인 확인’, ‘임시기표소 투표’ 등 투표 절차는 사전투표와 같다.

일반 유권자 투표시간은 종전과 같이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대선 광주·전남 유권자 278만여명

### 부산 단일지역 선거인수에도 못미쳐

제20대 대통령선거 광주·전남 유권자 수가 총 278만 9274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대선 대비 1302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양 지역을 합해도 부산이나 경남의 단일지역 선거인 수에도 못 미쳤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인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4419만 7692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수는 2020년 총선보다 20만 3445명, 2017년 제19대 대선보다 171만 7982명 늘었다.

선거인(재외선거인 제외) 중에서는 여성이 50.4%(2227만 6321명)로 남성

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9.5%(862만 3936명)로 최다였다.

18~19세는 2.2%(98만 546명)였고, 20대 14.9%(659만 7680명), 30대 15.1%(667만 2659명), 40대 18.5%(815만 7799명), 60대 16.4%(722만 8901명), 70대 이상 13.4%(590만 6989명) 등이었다.

광주의 선거인수는 지난 대선보다 452명 늘어난 120만 8942명으로, 대전(123만 2799명), 강원(133만 3280명), 충북(136만 4649명)에도 뒤진 전국 14 번째였다.

전남은 158만 332명(9번째)으로, 지난 대선보다 850명 증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